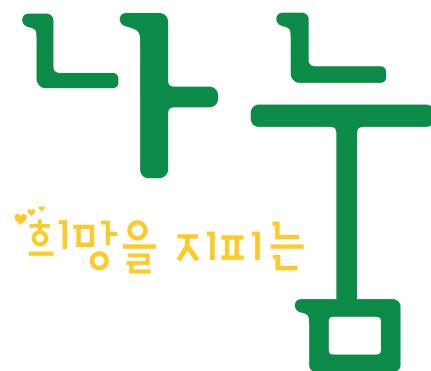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2022. 2호

## 착한 사마리아인과의 만남

FMM 미얀마 관구

2021년 2월 1일, 미얀마 정부와 국회의 선출된 의원들을 축출한 군사 쿠데타에 전국민이 저항하면서 미얀마에 혁명이 봄이 시작되었다. 쿠데타와 Covid- 19, 커져가는 폭력으로 나라는 인도주의적 비극, 분열의 심연으로 내몰렸고, 사람들은 끊임없는 인권 침해를 직면해야 했지만, 미얀마 국민들은 많은 주, 지역과 부족에 걸쳐 쿠데타에 저항하는 크나큰 용기를 보여주었다.

군부는 미얀마 서부에 위치한 Southern Chin State주에 있는 Mindat 타운에서 시민들을 통제하고 체포하기 시작했다. 고향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4월 4일, CDF(the Chin land Defense Force)가 결성되었고,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다 체포된 청년 7명을 석방할 것을 요청했으나 군부는 이를 묵살했다.

처음 몇 달 동안 정권이 다른 지역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구금, 고문하여 하룻밤 사이에 죽이는 일들이 속출했고, 그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 깊이 우려하게 되었다. 이에 14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군인들에게 대항하여 자신들과 이웃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에서 만든 무기를 모으기 시작했고, 첫번째 전투는 Mindat 에서 2021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두번째 전투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치러졌다.

군인들은 무작위로 집을 습격하며 총을 쏘았고, 안에 숨어 있던 사람들은 총상을 입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전에 이런 경험을 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만 챙겨 목숨을 구하기 위해

MYANMAR

가까운 마을이나 숲으로 도망쳤다. 지붕도, 담요도, 음식도 없었지만 무화과 열매를 따먹고 개울물을 마시며 정글에서 살아남았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설사나 영양실조, 각종 질병에 시달렸지만 약과 치료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몇몇 아이들은 숲에서 죽었고, 어떤 이들은 독사에 물려 세상을 떠났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군부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그들은 번번이 약속을 어겼고, 합의된 사안도 지키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싸움은 계속해서 발생했다. 현대식 자동 기계, 포격, 화학 무기 및 공습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오직 전통적인 방법으로 손수 만든 총만으로 무장한 CDF를 공격했으니 참으로 공정치 못한 전투였다. 국가에서 가장 큰 예산을 지닌 훈련된 군사들과 경험도 자원도 없는 젊은이들의 싸움이라니! 그러나 골리앗에 항거한 다윗처럼 젊은이들은 군사들의 총알과 화약이 떨어질 때를 기다려 돌, 진흙, 마른 소나무 열매를 던지며 그들을 무찔렀으니, 진정 목숨을 바쳐 자유와 민주주의를 되찾으려는 젊은이들의 결단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시위행진

2021년 5월부터 정글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 우리 공동체로 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폭격과 포격에 대비해 지하 대피소를 준비할 계획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몰려드는 인파를 보고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음식, 쉼터, 운송 수단, 진료소에 대해 구상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전에 이런 경험이 없었고, 이에 전혀 준비되지 않아서 부족함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트라우마를 주지 않도록 나이, 성별, 부족, 종교에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환영하며 동등하게 대했다.

이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FMM의 카리스마를 의미 있게 증거할 수 있었다. 실향민들 중에는 노약자, 신생아, 임산부, 장애인, 말기 환자 및 정신질환자들도 있었다.

무장 충돌로 인해 Mindat에 있는 병원과 진료소가 문을 닫게 되면서 우리가 운영하는 작은 진료소는 희망과 치유의 중심이 되었다.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도 진료를 받으러 사람들이 찾아왔고, 우리는 이를 위생 및 생태 캠프에서 그들을 의식화 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재활용을 위해 플라스틱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고,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에게 기초 영어 수업, 노래, 신앙을 가르치며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 최선을 다했다. 또한 최전선에서 병자와 부상자를 돌보는 주축이 된 24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응급 처치 교육를 실시했다. 유기서원자 한 명이 진료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군인들은 마을들을 습격해서 집을 샅샅이 뒤져 훔치고, 귀중한 물건을 약탈하고, 주인들이 굶주리며 숨어있는 동안 그 집의 가축들로 잔치를 벌였다. 심지어 성당과 불교 사원도 파손시켰다. 그들은 6월과 8월에 공동체 인근 마을까지 왔기에, 사람들은 두 번이나 마을 밖으로 도망쳐야 했다. 군인들이 Mindat 타운으로 가는 모든 진입로를 차단해서 식량과 약품을 비롯한 어떤 것도 구할 수도 없었고, 한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로 들어갈 때면 사람들을 체포해 인간 방패로 삼았다. 고작 작은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 800명에서 1,000명으로 병력을 보강하다니!

우리의 작은 진료소는 많은 생명을 제때에 구할 수 있었는데, 실향민 중에 의학 교육을 받은 이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왔고, 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응급 상황이 생길 때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동 진료소 역할을 특특히 해냈기 때문이 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며 다른 이들을 돋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섰다. 많은 젊은이들은 정글을 통해 식량과 의약품을 구해올 수 있었고, 우리 역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우선적으로 응하다 보면 저녁 9시나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저녁 식사를 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이렇게 우리의 작은 진료소는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만나는 여관이 되었다. 착한 사마리아인

들이 그들의 재능, 지식, 힘과 헌신을 나눌 때마다 기적이 따라왔다.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졌고, 두려움 속에서도 일치, 친절, 인간애의 기쁨을 느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이재민들과 함께 매일 9시간의 조배,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Divine Mercy Rosary), 동서남북을 향한 성체 강복의 시간을 가져왔고, 하느님께서 수차례 우리를 군사 침공과 폭격에서 보호해 주셨음을 믿는다.

FMM으로서 우리는 대립된 그룹 사이에서 휴전 협상을 위한 피스 메이커이자 메신저, 군인들에게 부당하게 잡혀간 이들의 가족들을 위해 소리 없는 이들의 소리가 되었다. 동시에 총을 맞고 낙엽이 지듯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일은 진정 가슴 아픈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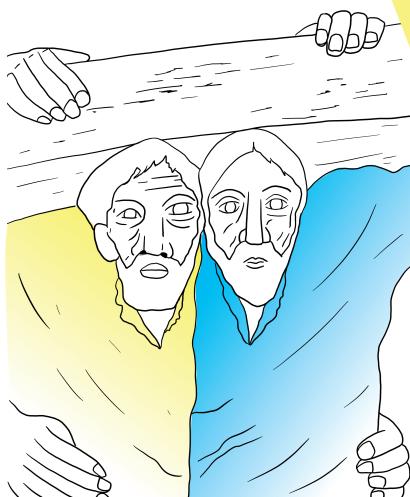
아침에는 살아있던 사람들이,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사라지는 들꽃처럼 어느새 사라져갔다. 부유함, 재산, 학식과 직책도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했고, 우리는 인간의 삶은 덧없이 짧으며, 하느님의 사랑만이 영원하심을 마음 속 깊이 느끼기 시작했다. 이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그 의미를 찾는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와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어서 빨리 회복해 주시기를!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 우크라이나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 주고 명에 줄을 끌러 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명예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네 양식을 굽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를 지켜 주리라. 그때 네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네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이사야 58, 6-9

## 자선

“‘자선’은 우리를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우리의 이웃을 형제 자매로 여기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은 결코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선이 우리 각자에게 진정한 삶의 방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친교의 생생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2018년 사순 시기 담화)

## 마음의 회개

“사순 시기는 하느님의 말씀에 자리를 내어주는 데 적절한 시기입니다.”

사순 시기는 “TV를 끄고 성경을 펼치는 시기”이고 “휴대폰을 끄고 복음과 친숙해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말, 잡담, 소문, 혐담들을 끊어 버리고, 건전한 마음의 생태학에 전념하는 시기입니다.”

파스카를 향한 40일간 사순 시기 여정의 의미는 광야의 영적 의미와 연관돼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또 다른 말씀, 곧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와 같은 하느님 말씀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소리는 없습니다. 광야는 하느님 말씀의 장소입니다.”

(2020. 2. 26 수요 일반 알현, 프란치스코 교황)

## 하늘 변호인

### 빈창숙 엘리사벳, 영적가족 4기

지인이 곱창 김을 먹어보니 맛있다고 내게 한 톳을 보내왔다. 역시 내 돈 주고 사 먹는 것보다 넘이 주는 공짜가 젤루 맛이 있는 법이다. 한데 곱창 김을 먹으면서 뭔가 자구 캉기는 게 곱창 김이 점점 맛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다. 지인이 곱창김을 보내며 떡~하니,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의 <연옥 영혼들을 위한 9일기도> 소책자를 2개나 곱창 김 위에 올려 보낸 것이다. 곱창 김을 꺼내며 슬쩍 기도문을 획~획~넘기며 "나중에 봐야겠다." 하며 책상 한쪽에 던져 놓은 것이 생각났다.

"아! 곱창 김을 보낸 거야! 아니면 기도문을 보낸 거야!"

나는 '벨라뎃다'의 <연옥 영혼을 위한 9일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이 기도문도 지인이 보내준 것으로 한동안 기도드리다가 또 안 드리고를 반복하고는, 요즘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살아갈 날이 짧아진 것을 의식해서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 중이었다.

"흠!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가 하나면 충분하지, 2개씩이나 기도를 드려야 하나!..."

그런데 공짜 곱창 김을 먹으면서 그래도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의 <연옥 영혼을 위한 이 기도> 소책자를 펴보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펴 보았다. 연옥 영혼들이 이 세상 생활 중 공통으로 뉘우치고 있는 9가지가 있었다.

첫째: 시간을 낭비한 것을 뉘우칩니다.

둘째: 재산을 탐진한 것을 뉘우칩니다.

셋째: 주님의 은총을 경시했던 것을 뉘우칩니다.

넷째: 범한 죄를 뉘우칩니다.

다섯째: 파렴치한 행위를 뉘우칩니다.

여섯째: 고해성사를 자주 받지 않았던 것을 뉘우칩니다.

일곱째: 연옥 영혼들을 위한 사랑이 부족했던 것을 뉘우칩니다.

여덟째: 사제들과 교회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뉘우칩니다.

아홉째: 하느님의 거룩한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뉘우칩니다.

어머나! 새삼 어느 것 하나 마음에 걸리지 않은 것이 없었다.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이란 존재가 너무 나약하게 보이면서 죽음이란 것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죽음을 묵상하게 되었고, 연옥과 지옥 그리고 천국을 생각했다. 전 세계의 뉴스를 접하면서 사람의 목숨이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같았고, 존귀함보다 덧없음을 느꼈다.

뒤늦게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가장 약한 이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드릴 때,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바라지 않아도 꼭 대가를 치려주는 기도가 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이다. 연옥 영혼들은 천국으로 올라가서는 자지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을 꼭 기억해서 변호인이 되어 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는 현세에서도 또 이다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다.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으면 더 맛있는 것처럼 좋은 기도도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혹시 곱창 김 드시고 싶으신분 계시나요?



**성프란치스꼬수녀회 2021년 후원금 결산서  
(1월-12월)**

수 입	지 출		
전년도 이월금	91,166,435	사무비	43,020,690
후원금 수입	401,155,400	법인 사업비	35,121,450
		해외선교지원	57,700,176
		새터민	35,060,000
		이주민	71,767,000
		공부방	27,790,000
		기타사회복지	16,060,000
		양성비	114,800,538
		후원자관리	13,620,090
		이월금	77,381,891
수입합계	492,321,835	지출합계	492,321,835

자동 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 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 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p@hanmail.net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2월 1일 ~ 2022년 3월 31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강승완	강연호	강지우(왕효준)	검단동성당	검암빈첸시오
고대완	고월순	고재영	고지영	고희숙	공창용
권진선	금부동	금창호	김광기	김광자	공해용
김덕칠	김도상	김동현루가	김두환(김철형)	김득수	구옹회
김상규	김상률	김상연	김상태	김샛별	김귀선미리암
김연진	김영덕프란치스코	김영순	김영옥	김성원	김귀선스테파니아
김용수	김용자(윤소라)	김용주	김용준	김원진	김남기
김정매(박치현)		김정숙마리아	김정연홍수봉	김정웅(김명신)	김정혜(정구총)
김종연	김주영	김주옥	김주희(신경란)	김준희	김지영
김진식	김진욱	김춘자루같다	김해자	김현숙(최지명)	김지혜
김호성(박정식)	김화자	김희재	나숙희	남보라	김현희
노정애	당효준	명영희	문성식	민정웅	노병덕(권정희)
박성근	박성준도미니꼬	박성현	박소진	박순옥	박금난
박은정	박은희	박인호	박재용	박승민	박명주
박해필	박현희	박효정	박희순	박정선	박연애
배철희	백성대	변복자	변태식	방상만사도요한	박원서
손순덕	손윤희	손은영	손은주	서덕순	박운실
송정애	송채영	신동규	신승일	서춘자	박찬순
양미경	양영자	양윤석	양종한	서태진	박태분
운남빈첸시오		원ENG(김진식)		서혜석	배장열
유은분	유주영(이성혜)	유춘성	손정례	송비아(명순)	소재록
윤미숙데보라		윤보미	송승윤(김영임)	송승윤(김영임)	송영희
이경석	이관훈	이광진(홍기원)	신유라	신주화	심귀선
이동세	이동현	이명순(이선영)	오숙자	신희식	안미령
이성호(조봉례)		이연실	오영희	오영형(최민귀)	양공연
이은주	이은향	이영미	유미경	우복명	우복명
이정숙마리아		이인숙로사	유병춘	유병춘	우영희
이항남	이해일	이정숙수산나	육동배	유복희	유수민
임지원	임혜숙	이현준	윤규현	윤명희	유시연
장현아	전순자	이창석(이창석)	윤규현	윤현숙	윤문섭(문선미)
정민정	정부강	임호	윤한희	윤명희	이갑수
정재훈(정지호)		장민정	윤현숙	이남순	이강모
조금자	조남섭	장세옥	윤한희	이기향	이대례
조희무	지정희	정경원	윤현숙	이기혁	이복순
최숙규	최순애	정경필	윤복희	이복순	이상문
최향미	최혜정	정동락	정인순	이영혜	이성엽
한기훈	한순옥	정진명	정진숙	이용길	이윤신
현경미	홍말숙	진선준	정향숙점마	이윤신	이윤우
황정숙		진성자	정혜경	이정란(최윤)	이정숙데레사
		진숙인	조건희(최휘선)	이태금	이필단
		진신아	조정희	이지인프란체스카	임윤섭
		최은실	조혜영	임승우	임정태
		태계남	조정희	장영표	장우영
		파키스탄박진	조혜영	장원태	정미영
		한효정(권오현)	조정희	정경필	정명국
		허준자	조정희	정동락	정재영
		허정자	조정희	정인순	정진명
		황인복	조정희	조국제	조근미
			조정희	조혜영	조희공
			조정희	조화숙	조희준
			조정희	최규범	최성준
			조정희	최금영	최선애
			조정희	최인석	최지은
			조정희	최일순	최지은